

Goal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상미

I. 목표(Goal)의 의미

1. 설정 배경

MDGs 달성에 있어 국제사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MDGs가 성장(growth) 관련 이슈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MDGs가 주로 사회적 분야(social sector)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조 분야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사회적 분야(social sector)의 원조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생산과 인프라를 위한 원조액은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8.1〉 분야별 원조액 추이(OECD 통계 기준)

구분	2000년		2009년	
	원조액(USD) (단위:billion)	총 원조액 중 비율(%)	원조액(USD) (단위:billion)	총 원조액 중 비율(%)
사회적 분야(social sector)	14.4	32	45.2	43
경제/인프라 (economic/infrastructure)	7.6	17	15.3	15
생산 분야 (production sector)	3.2	7	6.7	6
기타	20.1	45	37.7	36
총계	45	100	105	100

출처: Bergh and Melamed(2012:3)

MDGs 선언 이후, 공여국들은 사회적 분야 목표 달성에 주력하였고 경제체제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였다.¹⁾ 최근에는 서서히 기존 공여국들도 경제 성장 증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양적인 경제성장만이 아닌 포용적 포괄적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U)는 2011년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빈곤 감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하느냐(growth pattern)는 성장률(growth rates)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EU는 사람들이 성장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보상을 받고 일자

1) 반면 중국 등의 신흥공여국은 인프라와 생산 분야 지원에 주력하였다.

리를 창출하는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inclusive) 경제 성장을 중요시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EC 2011:4). 미국개발원조청은 개발도상국의 폭넓은(broad-based) 경제 성장 지원을 기관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명시하였고(USAID 2011:3), 영국개발원조청 역시 내부 전략문서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경제성장 지원을 기관의 주요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DFID 2011).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지속가능발전총회(Rio+20) 또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회의로, 총회 결과 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면적이고 생산적인 취업과 사회보호에 대한 촉진’에 관한 내용을 26대 이슈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개발, 특히 경제 성장에 있어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을 제시한 것이다. 2014년도 제 2차 G20 개발그룹(DWG²⁾) 회의³⁾에서도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과 함께 고려해야할 사항들로 ‘성장과 개발⁴⁾’, ‘환경 친화적 개발⁵⁾’, 사회적 개발⁶⁾’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G20 2015).

이러한 흐름은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MDGs와는 달리,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경제성장 관련 목표가 포함되었으며 총 17개의 목표 중, 목표 8과 목표 9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장에서 다룰 목표 8은 축약하자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SDGs가 경제성장·사회적 포용·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하고, 인간중심·존엄성·평등·정의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한 만큼, 동 목표는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목표달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2. 정의와 의미

동 목표는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2) G20정상들은 제 4차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2010년 6월)에서, 향후 제 5차 서울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비중 있게 논의하기 위해 G20 개발그룹(DWG, High-Level Development Working Group)을 발족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3) 2014.5.8.-9일간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 대한 G20 기여방안과 관련한 특별포럼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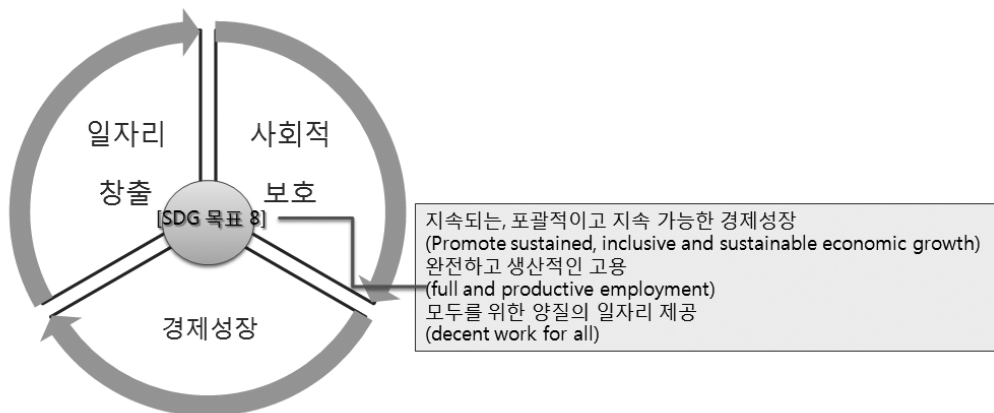
4) 생산성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성장 요인(혁신, 산업인프라 업그레이드, 시장경제 등)과 모멘텀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용적 제도 마련, 지역통합 강화, 국가 각 경험 공유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5) 환경 친화적(going green) 개발의 중요성 강조하였다.

6)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 국가 간 국내의 불평등의 심화 등의 포용적 성장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이슈임을 강조하였다.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이다. 목표는 다시 총 12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이 12개의 세부 목표는 주제별로 총 3가지, ① 일자리 창출 ② 사회적 보호 ③ 경제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제별 3가지 요소를 살펴보기 전에, 동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동 목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후, 다음 장에서 3가지 요소(일자리 창출, 사회적 보호, 경제성장)와 그에 해당하는 세부 목표를 다룰 예정이다.

〈그림 8.1〉 SDGs 8과 구성요소



출처: 저자작성

동 목표에 언급된 개념은 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②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③ 양질의 일자리 (decent work)이다.

가.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속적인 경제 성장(sustained economic growth)은 역동적(dynamic)이고 오래가며(enduring) 스스로 변화하는 성장을 의미한다(UN TST 2013:1).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활동들이 가능한 시스템과 기술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제가 계속 발전 운영될 수 있었던 사례가 그 예이다.

두 번째, 포괄적 경제 성장(inclusive economic growth)은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고 사회 모든 구성 계층(특히 소외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부의 재분배, 사회통합, 인간 존엄성, 불평등 해소 등도 고려하며 나아가는 성장을 의미한다(UN TST 2013:1). 단순히 경제적 번영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well-being)까지도

고려해야한다는 개념이며 장애인, 여성, 비주류 계층, 소수인종 등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은 경제 정책과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환경을 고려해야한다는 개념이다(김철수 2004).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많은 경우 환경이 파괴되며, 지구의 자연 시스템이 훼손된다. 1인당 자원(material) 사용량은 1900-2005년을 거치며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UN TST 2013:1). 지역 차원의 오염 및 폐기물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저 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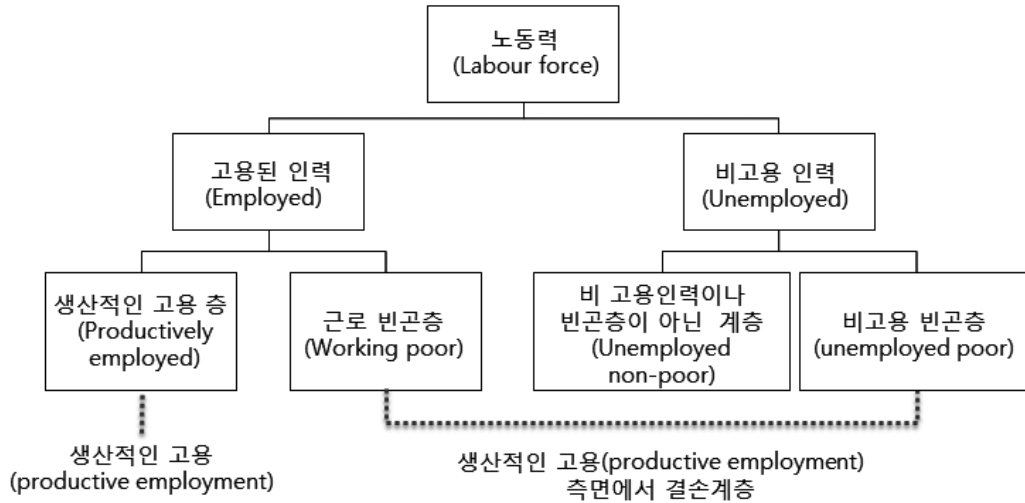
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완전 고용(full employment)’의 의미는 노동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고용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생산적인 고용(productive employment)’은 고용 근로자와 그들의 부양자들이 빈곤하지 않을 정도의 소비가 가능한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고용을 의미한다(ILO 2012).

생산적인 고용의 개념은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 보다 어떤 수준의 근로를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인데, 근로 빈곤층이란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하루 1.25달러 이하인 수준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Steven Kapsos 2013). 대부분의 근로 빈곤층이 종사하는 직업은 사회보장이나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종류의 직업이므로 경제 위기 시 보호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금융 위기가 오면 근로 빈곤층들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림 8.2>에서처럼, 노동력은 크게 고용된 사람들과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고용된 사람들은 다시 ‘생산적인 고용층(productively employed)’과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으로 나누어진다. 근로 빈곤층은 비고용(unemployed) 계층과 함께 ‘생산적인 고용’ 측면에 있어 결손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동 목표는 이러한 결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적인 고용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8.2〉 빈곤의 측면에서 본 노동력(labour force) 구성도



출처: ILO(2012:4)

다. 양질의 일자리

국제기구 중 특히 국제노동기구(ILO)가 양질의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슈화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ILO는 2012년에 POST-2015 개발 아젠다 ‘Beyond the MDGs : It’s all about jobs and livelihoods’에서 개발협력과정에서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및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ILO 2012).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란 ‘생산적이며 공정한 소득을 가져다주는 기회를 수반하며, 안전한 일터 뿐 아니라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한 보다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장려하고,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대해 노동자 스스로의 관심사를 표현·조직화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모두에게 동일한 처우와 기회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김성규 2013:4). 이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자리의 질(job quality)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자리의 질은 취업상태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노동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개별 계약관계를 넘어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고용과 노동권의 문제를 고려한다(고용노동부 2010).

즉 양적인 일자리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닌 사회적 안정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특정 직업이나 직업의 경제적 사회적 보상 조건을 언급하는 용어, 예를 들어, 좋은 혹은 나쁜 일자리가 아닌, 사회적 기회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가치론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성규 2013:34).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양적 고용 증가 자체만으로는 빈곤 감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직업의 안정성이 낮고 사회보호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라면,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빈곤 계층은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어렵고, 따라서 빈곤탈피가 쉽지 않다. 전 세계 노동 인구의 절반은 갑작스러운 실직 후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공적인 지원이 없다면 곧바로 빈곤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력의 비율은 1997년 53%에서 2007년 50%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 15억 명의 노동자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유엔새천년보고서 2013-2014).

또한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여성 시간제 불완전 고용률⁷⁾은 남성보다 높으며, 특히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는 비농업분야 임금노동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 이러한 지역에서 여성의 유급고용목표는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유엔새천년보고서 2013-2014).

II. 목표(Goal)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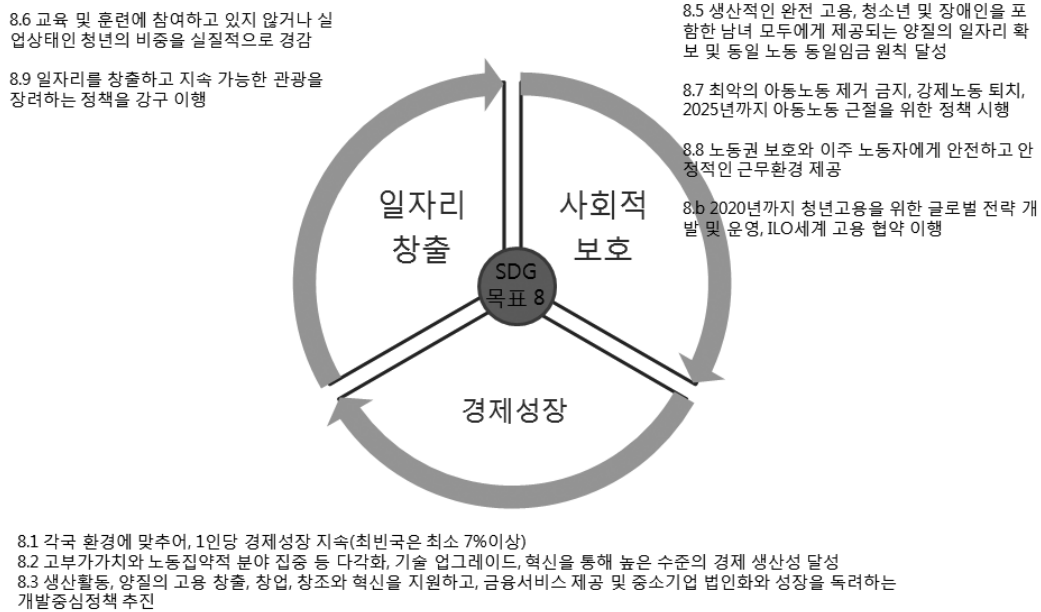
1. 목표의 논리구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2개의 세부목표는 주제별로, ① 일자리 창출, ② 사회적 보호, ③ 경제 성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부 목표는 청년 실업률 경감(8.6), 일자리 창출 및 관광업 장려 정책 추진(8.9)이다.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관련된 세부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 달성(8.5), 아동노동 근절(8.7), 노동권 보호 및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8.8), ILO세계 고용협약 이행(8.b)이다. 사회적 보호는 취약계층인 아동, 이주노동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성장에 있어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social opportunity and safety net)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성장과 관련된 세부목표에는 1인당 경제성장 지속(8.1),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분야 등 혁신을

7) 규정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일할 가능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비율을 측정한 수치이다.

〈그림 8.3〉 SDGs 목표 8의 12개 세부목표 주제별 구분표



출처: 저자작성

통한 경제생산성 달성(8.2), 생산 활동 및 양질의 고용창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법인화와 성장 독려 개발중심 정책 추진(8.3)이 포함된다. 그 외에 국내 금융기관 역량강화(8.10), 개도국 무역을 위한 원조(8.a)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MDGs에서는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SDGs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를 목표 8 아래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표 8.2〉 세부목표와 지표(안)

8.1	각국 환경에 맞추어 특히 최빈국은 연간 GDP성장률이 적어도 7%이상 되도록 1인당 경제성장 지속
지표	1인당 국내총생산(GDP)
8.2	고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분야 집중 등 다각화, 기술 업그레이드,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
지표	취업자 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3	생산 활동, 양질의 고용 창출, 창업, 창조와 혁신 등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등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및 중소기업의 법인화와 성장을 독려하는 개발중심 정책 추진
지표	비 농업분야에서의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 ⁸⁾ 비율(성별 분리)

8)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 제도적 틀 아래에서 규정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보수를 제공받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자영업도 포함된다.

8.4	선진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10개년 계획 (10YFP) ⁹⁾ '에 따라,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의 전 세계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의 질적 저하와 경제 성장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
지표	자원 생산성(Resource Productivity) - 국내총생산(GDP)을 국내 자재 소비(DMC) ¹⁰⁾ 값으로 나눈 값
8.5	2030년까지 생산적인 완전 고용, 청소년·장애인을 포함한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달성
지표	직업별 여성과 남성 근로자 평균(시간당)임금(남/여 차)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청년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경감
지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15-24세 청년 비율(%)
8.7	최악의 아동노동 제거 및 금지, 강제노동 퇴치, 2025년까지 소년병의 모집 및 활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이행
지표	아동노동에 동원된 5-17세 어린이 수와 비율 (%) (성별구분, 최악의 아동노동은 분리)
8.8	노동권 보호와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와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
지표	도수율(Frequency rate) ¹¹⁾ 과 산업재해로 손해 본 시간(성별/이주 등급별 구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상품을 알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이행
지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속가능한 관광업
8.10	모든 사람이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금융기관 역량강화
지표	성인 100,000명당 상업은행 영업소 및 현금인출기(ATM)기 수
8.a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개선된 통합체계'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지원 증대
지표	무역을 위한 원조에 있어 약속과 이행(지출)
8.b	2020년까지 청년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개발과 운영, 'ILO세계고용 협약'이행
지표	국가 예산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및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분야 정부 총 지출 예산

출처: UNSD(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 9) UN회원국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FP: 10-Year-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을 녹색경제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로 채택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우선 추진과제로 '관광', '소비자 정보', '생활방식(lifestyle) 및 교육', '건축', '공공 조달' 분야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 10) DMC(Domestic Materials Consumption)-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자재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국내 원자재 연간 양+상품수입-상품수출로 계산한다.
- 11) 산업 재해의 지표의 하나로 노동 시간에 대한 재해의 발생 빈도율을 의미한다.
(치명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산업재해 모두 포함)

2. 세부목표별 의미와 한계

총 12개의 세부목표와 그에 따른 지표는 위의 <표 8.2>와 같으며, 이제 세부목표별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중, 개발협력과 관련된 세부목표(8.5, 8.6, 8.7)는 뒤에서 추가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세부목표별로 간략히 살펴보자면, 세부목표 8.1은 각국의 환경에 맞추어, 특히 최빈국은 연간 GDP성장률이 적어도 7% 이상 되도록, 1인당 경제성장을 지속해야함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지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다. 이 경우, 양적인 측면만을 측정하는 GDP를 지표로 정하게 되면, 달성 과정에서 불평등과 환경파괴라는 SDGs가 지양하고자하는 부작용이 더해질 수 있다. 또한 7%라는 목표치는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왜 7%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 모호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또한 최빈국의 지표만 제시되어 있고, 그 외 국가들에 대한 목표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목표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세부목표 8.2는 고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분야 집중 등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혁신을 통한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을 목표로 두고, 지표는 취업자 당 GDP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동 세부목표는 GDP와 고용률 양적증가만을 위한 목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GDP/취업자 수로 선정하여, 고부가가치 등 분야 다각화, 혁신 등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세부목표 8.3은 생산 활동, 양질의 고용 창출, 창업, 창조와 혁신 등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등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및 중소기업의 법인화와 성장을 독려하는 개발중심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비 농업분야에서의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 비율을 첫 번째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비공식 고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의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 제도적 틀 아래에서 규정되거나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보수를 제공받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넓은 범위에서 자영업도 포함한다. 따라서 동 세부목표는 농업분야가 아닌 기타 분야에서 창업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의 고용 창출 및 생산 활동을 이끌어내고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설정한 세부 목표로 보인다. 하지만 비공식 고용이 창업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ILO의 정의에서처럼 법적 제도적 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를 모두 포함하므로, 오히려 동 세부 목표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질이 낮은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다. 이는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decent work for all)는 목표와 충돌 할 수 있다.

세부목표 8.4는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의 전 세계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의 질적 저하와 경제 성장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표는 자원 생산성(resource productivity)이다. 자원 생산성은 GDP를 국내 자재 소비값(Domestic

Materials Consumption, DMC)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DMC는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자재(material)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국내원자재 연간 값+상품수입-상품수출로 계산된다. 자원생산성 지표로 동 세부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경제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며, 목표치가 없어 모호하다. 동 세부목표는 9.4, 12.1, 12.2 목표와도 연계되며, 세부목표 12인 '지속가능 소비생산 증진'과는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다.

세부목표 8.5는 2030년까지 생산적인 완전 고용, 청소년 및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보·제공하고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달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로는 직업별 여성과 남성 근로자 평균(시간당)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목표 8.5는 불평등 해소에 관한 목표인 목표 10 중, 10.3과 10.4와 연계되는 목표이기도 하다. 평등 보장 및 결과의 불평등 경감, 사회보호 정책 등 불평등 없애기 정책의 도입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세부목표 8.6은 MDGs의 1.b세부목표와 연계되는 내용이며, 계속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목표이나,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고, 개발도상국에서 실업률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표 설정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세부목표 8.7은 아동노동에 관한 내용이다. 세부목표 8.7은 개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목표이다. 지표로는 아동노동에 동원된 5-17세 어린이 수와 비율(%)이며 성별을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세부목표 4.1, 8.8, 16.2와 연계된다.

세부목표 8.8은 노동권의 정의가 모호하고, 모든 국가에서 이 목표를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은데, 목표치는 무엇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어떻게 측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세부목표 8.9는 관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목표이다. 선진국이나 관광자원을 가진 개발도상국이 관광업을 경제발전의 주요한 동력원으로 삼을 수 있으나 관광 장려 정책을 통한 실질적 경제성장 기여도를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세부목표 8.10은 금융기관 역량 강화에 관한 목표인데,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민관 협력 등을 통한 금융 분야 원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제 2차 G20 개발재원그룹회의에서도 금융소외계층 포용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며, 국제 송금 등이 개발도상국 재원에 중요한 이슈임이 언급되었다. 또한 송금비용 감축 감소를 위해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바일, ATM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송금비용 감축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외교부 2015). 하지만 동 세부목표의 지표는 '10만 명당 ATM기기의 수'이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유선망 구축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 통신망이 보편화된 사례가 있다. 또한 케이블 기반 TV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선인터넷 망이 구축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ATM기기의 수는 금융소외계층 포용이라는 세부목표의 지향점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부목표 8.a는 무역을 위한 원조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무역질서에 편입되어 무역 참여를 확대하고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빈곤 완화, MDGs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특히 대상 국가로는 최빈국을 중시하는데, 동 세부목표에서도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를 증대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무역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중요성은 강조할 만하다. 하지만 동 세부목표의 지표로 제시된 ‘무역을 위한 원조에 있어 약속(commitment)과 실질적 이행·지출(disbursement)’은 지표로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목표치 및 달성기한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 세부목표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부목표 8.b는 청년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정부의 ILO 세계고용 협약(Global Jobs Pact) 이행 내용이다. 먼저 ‘ILO의 세계고용 협약’은 경기 침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 심화¹²⁾와 실업 지속에 따른 사회적 위기 도래¹³⁾에 따라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IMF, OECD 등과 같이 ILO가 추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고용, 사회보호 정책을 통한 위기대응 및 사회 대화 강화 및 근로자 기본권 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노동연구원 2009).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를 위한 세부 목표라 볼 수 있다. 또한 청년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개발과 운영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과 관련, 지표는 ‘GDP대비 사회적 보호 및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분야 정부 총 지출예산’이며, 이 지표가 고용협약 이행과 청년고용 전략의 개발과 운영 모두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2.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목표체계 분석

MDGs에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다루었던 대표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달성 및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목표 1.b)’이다. 이 목표는 SDGs로 이어져, 목표 8.5, 목표 8.6로 구체화되었다. 넓게는 SDGs의 생산 활동 및 양질의 고용 창출, 개발중심 정책 추진(목표 8.3)과도 연계된다.

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MDGs에서의 양성평등에 입각한 교육의 성별 균형 달성 목표(목표 3.a) 역시 SDGs의 청년의 실업률 경감(목표 8.6)과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 및 강제노동퇴치

12) 2008년 한해 전 세계 실업자 14백만 명 증가, 특히 미국·스페인·한국 등 OECD 회원국에서만 7백만 명의 실업자 발생(노동연구원 2009).

13) 고용위기는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권 저하, 개인적 좌절 및 자살률 증가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사회적 위기에 대해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빈부격차·식량위기 등과 함께 정치적 위기로 연결 가능(노동연구원 2009).

(목표 8.7)와 연계된다. 성차별 없는 교육 제공은 모두를 위한 고용·양질의 일자리 획득 및 아동노동에 넓은 큰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동 목표는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경제성장, 고부가가치 사업 다각화 및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국내 금융역량강화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MDGs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목표 7),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목표 8)과 연계된다.

〈표 8.3〉 일자리와 경제성장 관련 MGDs와 SDGs 간 연계도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8.5 2030년까지 생산적인 완전 고용, 청소년·장애인을 포함한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달성
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달성 및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청년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경감 8.7 최악의 아동노동 제거 및 금지, 강제노동 퇴치, 2025년까지 소년병의 모집 및 활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이행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8.4 선진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10개년 계획(10YFP) ¹⁴⁾ 에 따라,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의 전 세계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의 질적 저하와 경제 성장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
a.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을 국가 정책과 계획에 통합시키고 유실된 환경자원을 회복시킨다.	▶	
목표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8.2 고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분야 집중 등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
b.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과 금융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킨다.	▶	8.10 모든 사람이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금융기관 역량강화 8.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을 위해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협력 통합구조(EIF) ¹⁴⁾ '를 포함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대한 지원을 확대
e.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이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출처: 저자 작성

3. 목표체계 평가

세부 목표 중 특히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원조와 긴밀히 연계된 내용은 세부목표 8.5, 8.6, 8.7이다.

14) 2007년 5월, WTO는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 각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는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EIF(Enhanced Integrated Framework)를 개시하였다.

가. 세부목표 8.5, 8.6

〈표 8.4〉 고용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MDGs와 SDGs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목표 8. 지속되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달성 및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8.5 2030년까지 생산적인 완전 고용, 청소년 ·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달성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청년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경감

출처: 저자 작성

동 세부목표는 MDG 1.b를 계승한 고용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목표이다. 먼저 관련 MDGs 성과를 살펴보자면, ① 양적 고용 창출과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양적 창출 고용 창출 측면에서, 2013년도 새천년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고용률은 오히려 약 0.9%가 하락하여, 63%에서 62%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고용률이 2000년도 기준, 63.2%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MDGs 종료 시점인 2015년까지 완전 고용은 물론 성과를 내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김지혜 2015:48).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고용률 성별 차이는 2012년 이후 1년간 24.8%로 지속되고 있다.¹⁵⁾ 또한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는 취약고용계층¹⁶⁾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유엔새천년보고서 2013).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취약고용계층 비율은 2013년 기준, 약 56%를 차지하여 선진국이 약 10%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김지혜 2015:48).

MDGs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목표이다. 하지만, 빈곤퇴치 및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아래 Emst and Janine Berg(2009)의 성장과 고용 빈곤감소와의 관계도가 보여주듯이, 경제성장과 고용 빈곤 감소는 선순환구조를 가지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적 고용 증가가 빈곤감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상황, 전체 노동자의 56%가 취약고용계층이며,¹⁷⁾ 적절한 사회보

15) <http://www.un.org/millenniumgoals/poverty.shtml>, (검색일 2015.06.1).

16) 전체 고용대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노동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17)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2014-2015).

장혜택이나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양적)고용창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8.4〉 성장과 고용, 빈곤감소의 관계도



출처: Christoph Ernst and Janine Berg(2009:47)

따라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적절한 사회보장혜택, 기본 권리 보장이 중요하며, MDG 1.b에 이어 SDGs 세부목표 8.5와 8.6에서도 그 중요성을 담고 있다.

〈표 8.5〉 세부 목표 8.5, 8.6 및 지표설명

세부 목표명	8.5 2030년까지 생산적인 완전 고용, 청소년·장애인을 포함한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달성
지표	직업별 여성과 남성 근로자 평균(시간당)임금(남/여 차)
세부 목표명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청년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경감
지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15-24세 청년 비율(%)

출처: 저자 작성

단, 세부목표 8.5, 8.6의 지표는 목표를 측정하기에 적당한 지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8.5의 경우, 직업별 여성과 남성 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이 지표로 제시되

었는데, 세부목표 내용 중 중요한 개념인 ‘양질의 일자리’를 반영하는 개념이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를 가진다. 8.6의 경우는,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로 보이나, 2020년까지 달성해야하는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자칫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세부목표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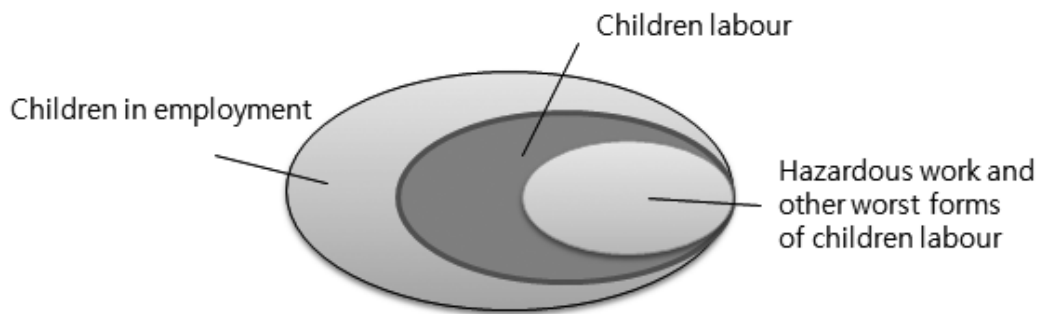
〈표 8.6〉 고용과 관련된 MDGs와 SDGs

목표 3.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목표 8. 지속되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달성 및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8.7 최악의 아동노동 제거 및 금지, 강제노동 퇴치, 2025년까지 소년병의 모집 및 활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이행

출처: 저자 작성

동 세부목표는 MDG 1.b를 계승지표이며, SDGs가 양적 고용창출만이 아닌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를 동반하는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만큼, 개발도상국에서의 대표적인 노동 취약계층인 아동노동을 별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8.5〉 아동노동 개념도



출처: ILO(2013:16)

먼저 아동노동은 허가된 형태의 가벼운 노동(light work)을 제외한, 최소 노동 가능 이하의 연령의 아동 노동이거나, 최악의 형태의 노동(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을 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그림 8.5〉에서 보듯이 근로 아동(children in employment) 보다 좁은 개념이다. 위험한 노동(hazardous work)은 심야노동, 긴 시간의 노동, 물리적 · 심리적 ·

성적 학대에 노출된 노동, 지하 및 수중에서 행해지는 노동, 위험한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하는 노동 등으로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을 의미한다(ILO 2013).

ILO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노동자(5~17세)는 2억 6천 명이며, 이 중 1억 6천 800만 명의 어린이는 권리 없이 노동만을 강요당하는 아동노동자로 살고 있다. 세계 18세 이하 어린이들 중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¹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아동노동 인구가 가장 많으며, 약 7천 7백만 명의 아동이 아동노동을 하고 있다.¹⁹⁾ 하지만 2013년 세계 아동노동보고서에 따르면, 비율적으로 아동노동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아동은 10명 중에 1명이 아동노동을 한다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아동은 10명 중에 2명 정도의 비율로 아동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전체 아동의 23%가, 소득수준이 중하위인 나라에서는 9%, 중상위인 나라에서는 6%가 아동노동을 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아동노동이 행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개발협력분야에서 특별히 아동노동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8.7〉 세부 목표 8.7 및 지표설명

세부 목표명	8.5 최악의 아동노동 제거 및 금지, 강제노동 퇴치, 2025년까지 소년병의 모집 및 활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이행
지표	아동노동에 동원된 5-17세 어린이 수와 비율(%)(성별/나이별/소년병 분리)

출처: 저자 작성

단, 가난이 아동노동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도 존재하며, 국가의 수입이 증대된다고 해서 아동노동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기회 확충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대안 없는 아동노동의 금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들이 다른 산업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18) http://www.povertywiki.org/index.php/%EC%95%84%EB%8F%99_%EB%85%B8%EB%8F%99_%EA%B0%80%EC%9D%B4%EB%93%9C
(검색일 2015.06.02).

19) <http://www.apil.or.kr/1536>(검색일 2015.06.02).

III. 우리의 대응 전략 및 기여방안

1.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및 대응방안

먼저 SDGs가 사회·경제·환경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지향하는 만큼, 개발협력분야 전략 및 프로그램 기획 시,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등의 상황과 특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균형 잡힌 개발협력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2015년은 SDGs 뿐 아니라 ODA정의 변화 및 개발재원 논의 등 변혁적(transformative)이며 새로운 개발 의제이행 관련 이슈가 많으므로 균형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고용 및 경제성장 부문은 경제 산업 구조, 노동시장, 노동정책 및 사회 보호시스템, 환경정책, 직업훈련 및 자격검증 정책 및 제도, 환경정책 및 규제, 무역활성화 등과 모두 연계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고려하되, 단편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접근을 염두에 두어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협력에 있어 항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상황(context)에 맞는 접근 또한 필요하다. 일방적인 한국의 경험 전수가 아닌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기타 환경 등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개발협력 분야의 분절화가 심각한 만큼, 유관기관 간 충분히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중복되지 않으며, stand-alone 정책·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노력이다. 또한 SDGs의 세부 목표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만큼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성과 프레임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향후 SDGs 달성도를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SDGs와 한국정부의 2기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간 일관된 평가·성과 측정 프레임이 필요하며, 각 세부 프로그램이 이와 연계되어야 한다.

2. KOICA의 대응방안

KOICA의 대표적인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인 직업기술훈련사업은 숙련된 기술자(skilled worker)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동 목표와 연계가 된다. 중점지원 국가 중, 14개 국가의 국가별 협력전략(2013-2015) 중점 지원 분야에 ‘인적개발’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수립, 직업훈련원 건립 및 운영, 커리큘럼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다만 직업기술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나 일자리가 부족한 개도국에선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인적개발프로그램이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시 고민이 되어야 함과는 별도로, 경제성장, 고용 창출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 KOICA의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프로그램이 수원국의 경제성장 혹은 일자리 창출과 보다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먼저 KOICA의 농림수산 프로그램은 ① 농어촌 인프라구축 ②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 ③ 농림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④ 소득원 다양화, ⑤ 농어촌 종합개발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관개용 댐 및 수로, 생산성 증대 지원 사업, 새마을운동 등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해당 개도국의 상황에 맞춘 지원이므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농림수산 분야 ODA는 경제성장에 있어 원시자본을 축적하고 국가 서비스 소비 측면의 근간이 되므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간접적으로 고용창출도 지원한다. 산업에너지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자생적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그램이며, 이는 경제성장을 간접 지원하므로 동 목표와 연계된다. KOICA는 주로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안정적 전력공급 및 에너지 개발 등 초기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로 및 도시, 산업단지, 송배전망 구축 등 기간 인프라 건설을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 개발컨설팅 형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NGO등과의 민관 협력 사업으로 가치창출(Value Chain), 유통망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과 연계된다.

이러한 KOICA의 기존 프로그램이 이미 동 목표와 긴밀히 연계된다고 볼 수 있으나, 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한다면 전략적 접근과 변화의 노력도 필요하다.

첫째로 사업기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거시적 분석이 필요하며, 사회적 보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동 목표는 양적인 고용창출 및 양적인 경제성장만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KOICA의 프로그램 사업 기획 시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개발도상국의 노동시장 및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양질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프로그램 기획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 뿐 아니라, 해당 개발도상국이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또한 혹시라도 KOICA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이행해야하는 관련 지침 등의 수립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SDGs지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는 KOICA의 프로그램을 SDGs지표와 어떻게 연계할지, 체계를 만들고 프로그램 수준의 지표(indicator)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 목표는 기존에 KOICA가 국별 협력 사업, 민관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수행해 오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연계가 된다. 예를 들어, KOICA는 기업과 NGO등과 민관협력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센터 지원 사업, 빈곤층 및 장애인 재활 등 사회 통합 지원 사업, 직업훈련사업, 공정무역·공정관광 역량증진 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무역역량강화를 위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역량개발 프로그램), 기후변화 환경 프로그램 등이 모두 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동 목표 달성 성과로 이어지려면, 프로그램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프레임이 마련되어야 하고, 각 프로그램과 국별협력전략(CPS), SDGs가 일관성 있게 연계 되어야한다.

참고문헌

- 김성규. 2013. “개도국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방안 연구 개선방안.”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SDGs 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19.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김지혜. 2014.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과제.” 이슈리포트. 서울 : 산업연구원.
- 김철수. 2004.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발적 단순성과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23(1): 27-49.
-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2010.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서울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_____. 2011.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서울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_____. 2012.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서울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외교부. 2015. DWG 비공식회의 결과 요약본. 서울 : 외교부.
- DIE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Post-2015 Agenda: Comments on the OWG and SDSN Proposals.”
- Ernst, Christoph and Janine Berg, 2009. “The role of 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European Commission. 2011. Increasing the impact of the EU Development Policy: an Agenda for Change, COM (2011) 637, Brussels.
-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foraff/130243.pdf, 검색일: 2015.06.10.
- Bergh, Gina and Claire Melamed. 2012. “Inclusive growth and a post-2015 framework.” London: ODI.
-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2015. “Summary of Key Outcomes :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Post-2015 Agenda Discussion Forum.”
- ILO. 2012. “Understanding deficits of productive employment and setting targets (A methodological guide).” Geneva: ILO.
- _____. 2013a. Concept Note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Jobs and livelihoods at the hear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Geneva: ILO.
- _____. 2013b. “Marking progress against child labour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IPEC).” Geneva: ILO.

- _____. 2013c. “Sustainable development decent work and green jobs.”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207370.pdf, 검색일: 2015.06.15.
- _____. 2015. “Major results of ILO work on child labour.” Gen?ve: ILO.
- Kapsos, Steven. 2013. “Compiling country-level working poverty indicators : Group exercises.”,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integration/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44776.pdf, 검색일: 2015.06.24.
- UN. 2006.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
- _____. 2013a.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
- _____. 2013b. “The Twin Challenges of Reducing Poverty and Creating Employment.” New York: UN.
- _____. 2013c. TST Issue Brief: “Sustained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New York: UN,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078Draft%20Issue%20Brief_Sustained%20and%20Inclusive%20Economic%20Growth_Final_16Oct.pdf, 검색일: 2015.06.10.
- UNSD. 2015.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s, New York: UN,
<http://unstats.un.org/sdgs/2015/05/29/first-proposed-priority-indicator-list/>, 검색일: 2015.05.30.
- UNU-IHDP and UNEP. 2014. “Inclusive Wealth Report 2014 : Measuring progress toward substantiality.”
- USAID. 2011. FY 12 Plan Performance, Washington, D.C: USAID, http://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70/FY%202012%20APR%20FY%202014%20APP_FINAL_4-2-2013.pdf, 검색일: 2015.06.12.
- UN 홈페이지. <http://www.un.org>.